

마스크 이어 손소독제 품질에 “직접 만들자” 셀프족 증가

전문가 “제대로 만들면 시중 제품과 큰 차이 없어” 시중 소독제 대비 3분의1 비용... “5분이면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에 이어 손소독제 등 바이러스 예방 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품질 조짐을 보이며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셀프족들이 늘고 있다.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손소독제를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한 문의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시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는 ‘손소독제 만드는 법’은 대동소이하다. 종합해보면 소독용 에탄올과 정제수, 글리세린을 약 8:1:1의 비율로 섞어준다. 이때 사용되는 에탄올의 농도는 60~80% 사이가 적당하며, 여력이 된다면 오일을 첨가해줘도 좋다.

최근에는 손소독제 품질이 계속되다 보니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약국도 등장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는 “우한폐렴 여파로 손소독제가 품절 및 가격급등됐다”며 간이 손소독제 제조법을 적어놓은 안내물도 구비해놨다.

해당 안내물에는 73% 에탄올 250ml 3병과 글리세린 100ml 1병 또는 62% 에탄올 250ml 3병과 글리세린 100ml 1병, 정제수 150ml 1병을 섞어서 만들면 된다는 설명이 적혀있다.

우한폐렴 여파로 손소독제가 품절 및 가격급등이 됐습니다.

마스크(kf180이상추천), 손소독제, 손씻기, 기침예절 필수입니다.

손소독제 품귀현상으로 간이 손소독제 제조법 적어놓습니다.

•만들어 쓰는 손소독제

73% 손소독제
에탄올 250ml 3병
글리세린 100ml 1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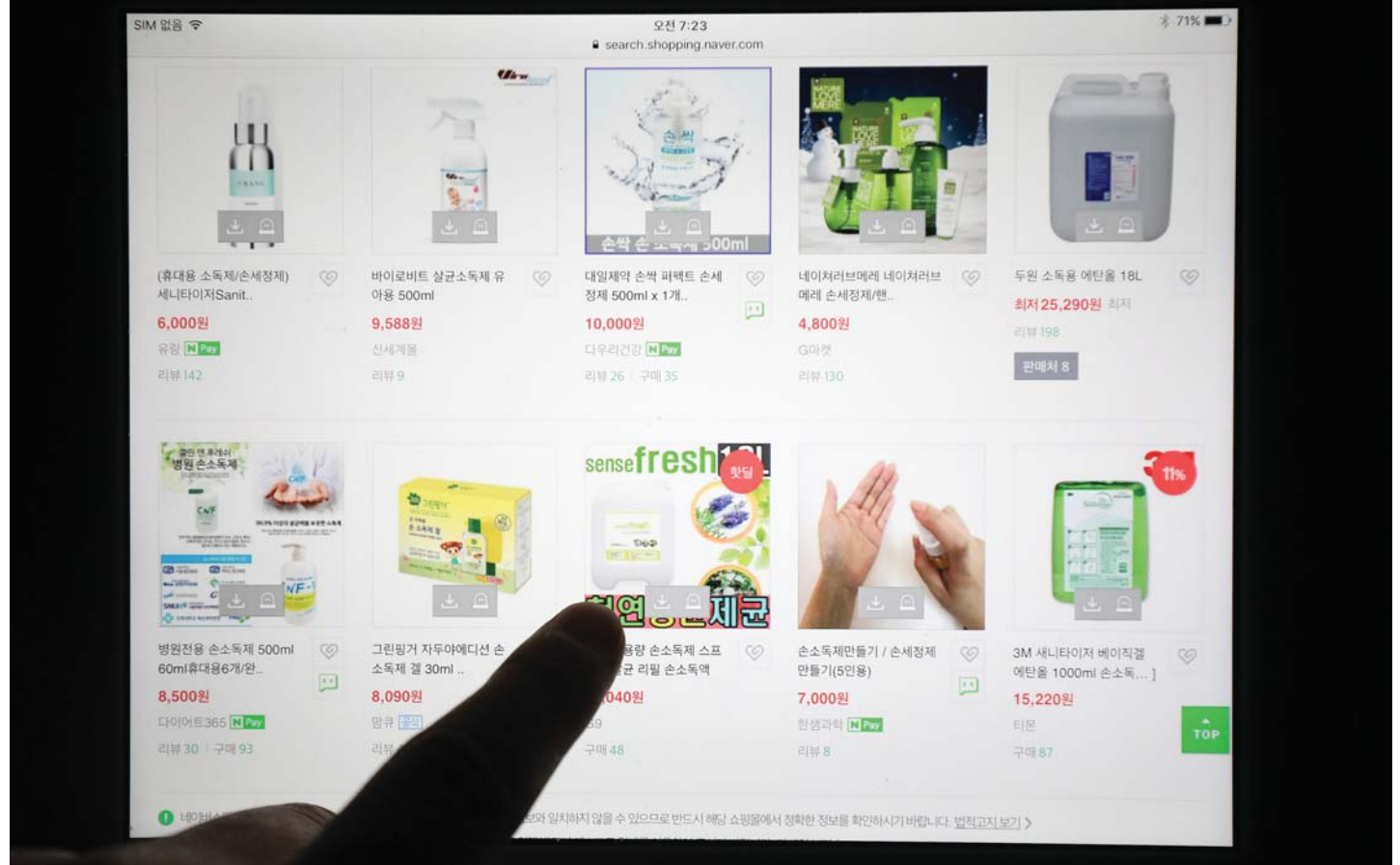
62% 손소독제
에탄올 250ml 3병
글리세린 100ml 1병
정제수 150ml

•부리는 소독용 에탄올도 사용가능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손소독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도 “약국에 갔더니 약사가 (손소독제) 구하기 힘들고, 만드는 것을 권장했다”며 “에탄올과 글리세린, 정제수를 패키지로 된 카운터에 올려놓고 팔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제대로만 만든다면 시중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대형마트와 약국 등에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동나는 등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직장인 엄마가 손소독제를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고 있다.

제품과 비슷한 효과

일반인이 직접 만든 손소독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제대로만 만든다면 시중에 파는 제품과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신성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소독용 에탄올의 경우 함유량이 60%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살균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70%가 넘어가면 소독효과가 더 좋지만 피부에 자극이 심하고 더 건조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피부 자극과 건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글리세린이다. 신 이사는 “시중에 있는 제품들도 글리세린과 아로마 등 보습 물질을 넣어서 판매한다”며 “(직접 만드는 경우) 글리세린과 에탄올, 정제수를 섞으면 글리세린이 보습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김포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 이우람씨(29)도 “에탄올 내 알코올 함유량은 70%면 충분하다”며 “알코올 함유량이 높으면 오히려 효과를 보기도 어렵고 수분 증발도 강해 어

린이나 노인에게 피부 자극과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재료를 혼동해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신 이사는 “요새 시중 약국에서 잘 팔지는 않지만, 메탄올 같은 공업용 알코올이 있다”며 “메탄올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에탄올이나 글리세린 같은 손소독제 재료도 많이 찾아(약국에) 없는 경우가 있다”며 “정 급할 때는 알코올 스프레이를 쓰고, 보습에 신경 쓰면 된다”고 덧붙였다. 알코올 스프레이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기 전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소독용 에탄올 등에 적신 1회용 알코올 솜이다.

◇“시중보다 훨씬 저렴...만들기도 쉽다” 만족도 높아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한 이들은 대체로 만족해 하고 있다. 재료들이 손소독제 기성품에 비해 훨씬 구하기 쉬워뿐더러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손소독제를 직접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 5000원 미만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손소독제의 가격이 500ml 기준 평균 1만~2만원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저렴한 셈이다.

약사 이우람씨는 “현재 손소독제의 경우 물량이 없어 1인당 1개로 제한해 하루 10개 남짓을 판매하고 있다”며 “500ml 기준으로 약 1만5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만들면 방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5000원 이하”라며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덕에 손소독제에 필요한 재료를 찾는 손님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손소독제 등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가격이 오르기 전 구매완료한 제품들까지 모조리 취소처리가 됐더라”며 “재료들을 구입해 직접 만들어 보니 생각보다 쉽고 값도 저렴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